

2020 년 7 월 5 일 “어그러지는 세대에 비추는 빛”(빌 2:15-16)

피카소(화가)는 ‘예술은 우리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짓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와 대조하여, ‘정치가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몇 개의 정보를 취합하여 자기 주장하는 바를 정당화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확증편향의 오류의 한 예입니다. 확증편향적 발언은 듣는 이에게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대이든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를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만드는 한 요소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분노와 혐오와 경멸이 일어나면 무엇이 참되며, 어떤 선택이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를 고민하며 주님 안에서 새 관점을 갖도록 애쓰는 것이 바른 성도의 길일 것입니다.

[1]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15 절 ‘어그러지다’(스콜리오스) – 굽다, 비뚤어지다 라는 뜻이며, ‘거짓된, 교활한’의 변형된 의미를 갖습니다.

선의를 위한 ‘하얀 거짓말’은 어그러지게 하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말하는데, 자기 사욕과 자존심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교활하고 간교한 뱀이 하는 일입니다(창세기 3 장)

‘거스르다’ –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 왜곡과 혼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 17:17**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가정 폭력, 살인, 사기, 횡령 사건같은 비도덕적 일의 수준을 훨씬 넘어,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추구하는 풍조, 즉, 교활함과 간교함이 만연한 풍토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2] 흠이 없고 순결하라

이런 세대 속에서도 진리로 견고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구하는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야 열립니다. 세속적으로도 잘 살려면 이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직했을 때, 미래에 대한 큰 그림없이 만년 평사원이라도 좋다 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어느 영역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 없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부름 받아 살면서 인생의 한 시기에 게인스빌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행하고 싶을 텐데,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저희 내외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이슈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방향이 분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역 안에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알고 인간인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입는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고 많이 모이는 것도 좋은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하나님과의 참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힘을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더 옳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또는 주님께 서원한 일을 못한다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뻔뻔스러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목적 아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잘 잡고 익히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목적과 방향을 지키는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입니다(15 절). 흠이 없다는 말은 죄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께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순전하다는 말은 '손상되지 않은, 한눈 팔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나를 흠이 있게 만드는 것, 즉 목적과 방향을 잃게 하는 온갖 부분적 사실들에 입각한 말들로 인해 편향적이고, 경직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차적인 것을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16 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달음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방향을 잡는 일에 순응하는 의지가 확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당신은 이 세대가 어떤 측면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2. 이 세대에서 빛 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